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논설문 쓰기 수업을 마친 후 학생이 쓴 성찰 일지이다.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드디어 논설문을 완성했다. 나의 주장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나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그 친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그것이 논설문을 쓴 목적이었다.

서론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지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었다. 본론에서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예방 조치가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글을 쓰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 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일이었다.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나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의 말과 같은 (㉠) 논거도, 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에서는 속담을 활용하여,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초고를 쓴 후에는 고쳐쓰기 전략 중 (㉡) 전략을 사용하였다. (㉡) 전략은 단번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는 전략이다. 선생님께서는 이 전략을 사용하면 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의 적절성에 주목하였는데, 첨가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독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여 주고 주장을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타당하고 믿을 만한 논거를 제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논설문을 쓰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뿌듯한 경험이었다.

2. 다음을 읽고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음운 변동은 음운론적인 조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불나비[불라비]’, ‘달님[달림]’에서의 유음 동화는 ‘/ㄹ/ 뒤’라는 조건 환경에서 일어난다. ‘/ㄹ/ 뒤’는 음운론적인 조건 환경이다.

그런데 음운 변동의 조건 환경 중에는 (3), (4)처럼 음운론적인 정보에 더하여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 (2)에서 보듯이 음성학적으로 유성 자음인 유음과 비음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3), (4)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3)과 (4)의 경음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음화의 조건 환경에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 (1) ㉠ 딸기[딸기], 째지[째지], 안개[안개]
㉡ 글쟁이[글쟁이], 뺨장이[뺨장이], 자랑질[자랑질]
- (2) ㉠ 잠도[잠도] (자고), 돈도[돈도] (별고)
㉡ (잠이) 깬다[깬다], (집에) 간다[간다]
- (3) 가을비[가을베], 숨구멍[숨꾸멍], 방구석[방꾸석]
- (4) (아이를) 안다[안따], (다락에) 숨다[숨따]

(1)을 고려할 때 (3)의 경음화의 조건 환경에는 단어 중에서 (㉠) (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2)를 고려할 때 (4)의 경음화의 조건 환경은 단순히 비음 뒤가 아니라 (㉡) 비음 뒤라고 해야 한다.

3. 다음을 읽고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불규칙 활용은 불규칙한 부분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제시한 규칙 활용과 비교해 보면 (1)은 어간 불규칙이고, (2)는 어미 불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어간 불규칙: 걷고[건꼬], 걸으니[거르니], 걸어[거러]
<참고> 믿고[믿꼬], 믿으니[미드니], 믿어[미더]
- (2) 어미 불규칙: 하고[하고], 하니[하니], 하여[하여]
<참고> 가고[가고], 가니[가니], 개[가]

그런데 동일한 자료임에도 관점에 따라서 불규칙한 부분을 어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미라고 볼 수도 있다.

(3) 이르고[이르고], 이르니[이르니], 이르러[이르러]
<참고> 기쁘고[기쁘고], 기쁘니[기쁘니], 기뻐[기뻐]

(3)의 '이르러[이르러]'에서 불규칙한 부분을 어간이라고 본다면 어간을 (㉠) (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이르러[이르러]'에서 불규칙한 부분을 어미라고 본다면 어간을 (㉡) (으)로 분석하게 된다. 현재 학교 문법은 후자로 분석하여 '이르러'를 어미 불규칙으로 분류한다.

4. (가), (나)를 읽고 ㉠, ㉡에 해당하는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집의 옷밥을 얻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는다 모른다
비 오는 날 일 업슬 지 솟 쏘면서 니르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 흐려 홀 지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베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내고
셔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田畝)을 괴경흐니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ㄱ리로다
자손에 전계(傳繼)흐야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움여리 사던 것슬
요스이 고공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크나 짜그나 동웃시 죠코 즘나
므음을 듯호는 듯 호슈*을 식오는 듯
무슴 일 감 드리 흘깃할긔 흐느슨다
너희니 일 아니코 시절쫓츠 스오나와
긔득의 니 세간이 플러지게 되야논디
엇그지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蕩盡)흐니
집 흐나 불타붓고 먹을 썰시 전혀 업다

- 허전, 「고공가」 -

* 호슈: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나)

<고공가>는 전란 직후 어려워진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교훈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주인은 근검한 고공 덕분에 대대로 덕을 쌓은 과거 집안 내력을 얘기하면서, 요즘은 고공들의 울바르지 못한 처신에다 외부의 약탈까지 더해져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졌음을 개탄하고 있다. 이를 작품 밖 정치 현실의 비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집, 고공, (㉠)은/는 각각 나라, 신하, 국조(國祖)를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 역시 나라를 어렵게 한 외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5. (가)는 면담 수업을 위한 교과서 단원의 일부이고, (나)는 교사가 단원 재구성을 위해 분석한 내용이다. (나)를 활용하여 (가)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학습 목표] 목적에 맞게 질문을 구성하여 면담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 활동]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해 면담 대상자를 정하고 면담을 수행해 보자.

1.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를 탐색하고 면담 대상자를 정해 보자.

- 일하고 싶은 분야나 직업을 탐색해 보자.
- (㉠) (으)로 분석해 보자.
-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을 정해 보자.

2. 1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 목적에 맞게 면담 질문을 마련해 보자.

- 진로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자.
- 작성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자.
- (㉡) (으)로 분석해 보자.

3. 2를 바탕으로 면담 대상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해 보자.

4. 면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나)

- ① (가)는 화법의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 볼 때,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서 수용 가능한 화제를 활용하여 과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습자가 면담 수행을 머릿속으로 연상하거나 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담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② 학습 활동의 전체 구조 차원에서 활동1과 2는 '면담 전' 단계, 활동3은 '면담 중' 단계, 활동4는 '면담 후' 단계로 학습 활동을 순차적으로 잘 구현하였다. 그런데 활동1이 면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하위 활동의 단계성을 고려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③ 활동2는 진로를 탐색하는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하므로, 질문을 만드는 활동에 대한 상위인지 활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작성 방법>

- (가)에 적용된 화법 교수·학습 방법을 (나)의 ①에 근거하여 쓰고, 그 이유를 (가)에서 찾아 서술할 것.
- (나)의 ②에 근거하여 ㉠에 들어갈 활동을, (나)의 ③에 근거하여 ㉡에 들어갈 활동을 각각 작성할 것.

6. 학습 독서를 지도하기 위해 ‘글 구조 활용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가)는 수업 자료로 사용할 ‘한국지리’ 교과서의 글들이고, (나)는 활동지이다. 글 구조 활용하기 전략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한국지리’ 교과서의 글

특수 지형 :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 학습 목표 :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

<화산 지형>

화산 지형은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와 가스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표로 분출하여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은 백두산을 비롯하여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에 분포한다. 화산 지형은 지표로 분출한 마그마의 점성과 폭발 형태 등에 따라 화산, 칼데라, 용암 동굴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화산 지형은 형태가 매우 독특하며 경치가 뛰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화산 지형은 제주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반암이 물 빠짐이 쉬운 현무암으로, 벼농사에 불리하여 대부분의 경지가 밭농사에 이용된다.

<카르스트 지형>

독특한 형태를 띠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된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강원도 삼척, 충청북도 단양 등을 들 수 있다. 카르스트 지형에는 지표가 우묵하게 파인 돌리네와 이곳에서 용식 작용이 더욱 진행되어 발달된 우발라, 지표 아래에 형성되는 석회 동굴 등이 있다. 카르스트 지형은 경관이 독특하여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삼척의 환선굴, 단양의 고수 동굴 등이 대표적이다.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암 지대 토양은 물 빠짐이 쉬워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주로 이용된다.

(나) 활동지

※ 오늘의 과제 : 글 구조 활용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교과서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기

1. 두 글을 읽고 각각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
2. 아래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말을 채우며 교과서 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자. 그리고 이때 전체적으로 활용한 구조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종합 정리>

특수 지형 :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1) 차이점

- _____
 화산 지형 :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와 가스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표로 분출하여 생긴.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에 분포)
 카르스트 지형 : _____
 (강원도 삼척, 충청북도 단양 등에 분포)

• 종류

- 화산 지형 : 화산, 칼데라, 용암 동굴
 (_____)
 카르스트 지형 : 돌리네, 우발라, 석회 동굴
 (지표에 발달할 때와 지하에 발달할 때로 나뉨.)

(2) _____

- 지형 활용 : 경관이 독특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됨.
 (제주도, 삼척 환선굴, 단양 고수 동굴 등)
- _____ : 기반암의 성질 때문에 밭농사보다는 밭농사로 이용됨.

3. <종합 정리>를 보며 친구와 짝을 지어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이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작성 방법>

- (가)의 <화산 지형> 글 전체에 나타난 ‘설명적 글의 구조 유형’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 특성을 설명할 것.
- (나)의 <종합 정리>에 전체적으로 활용된 ‘설명적 글의 구조 유형’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 장점을 서술할 것.

7. (가)는 설명하는 글 쓰기 수업을 구상한 내용이고, (나)는 수업 후 교사 협의회에서 나눈 대화이다. (가)와 (나)를 읽고, 쓰기 수업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 학습 목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쓰기 과제: 세계의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학급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 쓰기
-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평가 활동
도입	• 설명 방법의 특징 확인하기		-
전개	쓰기 과정	계획하기 [모둠별 협의]	• 쓰기 맥락 분석하기
		내용 생성하기	• 주제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 통일성을 고려하여 문장 개요 짜기
		표현하기	• 설명 방법 활용하여 글쓰기
		고쳐쓰기 [모둠별 협의]	• 초고 수정하기
정리	공유하기	• 학급 누리집에 게시하기	-
정리	• 설명 방법의 쓰임 정리하기		-

- 교수·학습의 중점
 - 지엽적인 쓰기 지식에 치중하기보다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면적 피드백의 원리'를 바탕으로 협동 작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평가의 중점
 - 평가의 주체를 교사, 학생 자신, 친구들로 다양화한다.
 - '통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도록 한다.

(나)

교사 A: 이번 수업은 쓰기 과정에 따라 한 편의 글을 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수업 전에 구상한 대로 학생들이 협동 작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여 학생의 쓰기 수행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 B: 선생님 수업 잘 보았습니다. 글을 쓰다가 막힌 학생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해결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협동 작문을 말씀하셨는데, 협동 작문은 모두의 구성원 모두가 한 편의 글을 공동으로 창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협동 작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사 A: 아, 선생님께서는 협동 작문에 대해 좁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 _____

<작성 방법>

- (가)의 '평가의 중점'을 참고하여 ㉠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쓰기 평가의 원리 중 '통합성의 원리'가 '고쳐쓰기' 단계에서 ㉡을 통해 구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할 것.
- '교사 B'가 협동 작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 들어갈 내용을 쓰되, (가)의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 포함할 것.

8. 다음은 단어와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관형사는 관형어로 쓰인다. 명사는 문장에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인다. 그리고 단어만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절도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1) 소쩍새가 구슬피 운다.
- (2) 가을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
- (3) 꿈처럼 하루가 지나갔다.

<작성 방법>

- (2), (3)에서 부사어를 찾아 각각 쓸 것.
- '부사어는 모두 부사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될 수 없음을 (2), (3)의 예를 각각 들어 설명할 것.

9. (가)는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오-'와 '-도-'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이들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중세 국어 문장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중세 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선어말 어미가 여럿 있다. '-오-'와 '-도-'도 그러한 선어말 어미인데, 이들은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도 교체 환경에 따라 같은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여 중세 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되며, '-도-'는 화자의 감탄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리고 '-오-'는 서술격 조사 뒤에서 '-로-'로 교체되는데, '-도-' 역시 서술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로-'로 교체된다. 한편 선어말 어미 '-오-' 뒤에서 종결 어미 '-다'는 '-라'로 교체되지만, '-도-'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

善友(선우)ㅣ 널오디

그리 아니라 나는 波羅捺王(파라나왕) ㉠ 善友太子ㅣ로라
그 썩리 널오디

그되 ㄹ장 어린 ㉡ 사르미로다 <월인석보 22:58>

<작성 방법>

- ㉠, ㉡의 선어말 어미를 교체 이전의 형태로 각각 쓰고, ㉠의 선어말 어미를 그렇게 분석한 근거 3가지를 서술할 것.

10. 다음을 읽고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앓어 누워서
어니 아츰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면 넷적 어니 나라 신선 같은데
새기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넋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작성 방법>

- 대비되는 시적 공간을 제시하고, 이를 화자의 정서와 연결 지어 각각 서술할 것.
- 화자와 '의원'의 정서적 교감을 일으키는 소통 방식 2가지를 작품 속 어구를 활용하여 서술할 것.

11. (가)를 (나)의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공원 입구의 오른쪽으로 한 작은 가갯집이 비껴 앉아 있고, 그 가갯집 부근의 뽕나무 가지들에 크고 작은 새장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뽕나무 가지들 중의 몇 곳에 그런 비슷한 광고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이리저리 내걸려 있었다.

— 새들에게 날 자유를 베푼다.

— 자비로운 방생은 당신의 자유로 보답받게 됩니다.

새장의 새를 사서 제 보금자리로 날려 보내게 해 주는 이른바 방생의 집이었다.

사내는 비로소 긴 망각의 골목을 벗어나 나온 듯 거기서 문득 발길을 머물러 섰다. 그리고는 어떤 깊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젖으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여 뒀다. 사내의 그 마르고 지친 얼굴 위로는 잠시 어떤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솟아 번지기까지 하였다.

사내는 이윽고 다시 고개를 돌려 그가 걸어 나온 교도소 길목을 조심스럽게 한번 건너다보고 나서 그 방생의 집 쪽으로 길을 건너갔다.

마침 그때 그 길 건너 가갯집에서는 공원을 찾아온 중년의 사내 한 사람이 흥정을 한 건 끝내 가던 참이었다.

“이제 선생님께선 이 녀석에게 하늘과 숲을 마음껏 날 날개를 주신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녀석의 자유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녀석의 자유를 사신 것은 바로 선생님 자신의 자유를 사신 것입니다…….”

서른이 좀 넘었을까 말까, 하관이 몹시 매끈하게 빨려 내려간 얼굴 모습이 어딘지 좀 오만스럽고 인색스런 인상을 풍기는 데다가 차가운 백동테 안경알 속에서 눈알을 몹시 영민스럽게 굴러대고 있는 ㉠가갯집 젊은이가 방금 흥정이 끝난 새장을 그 중년의 고객에게 넘겨주고 있었다.

[중략 줄거리] 교도소에서 출감한 늙은 사내는 공원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며 새 가게를 관찰한다. 그는 동전을 주워 자신과 감방 동료들의 자유를 기원하며 계속 새를 방생한다.

사내는 그 소리에 어슴푸레 잠결에서 깨어나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있던 야전잠바 자락을 밀어냈다. 한밤중에 웬 ㉡전깃불의 환한 빛줄기가 어두운 숲 속을 장대처럼 이리저리 훑고 있었다. 빛줄기는 때로 나뭇가지들의 한 곳에서 끈게 고정되고 한 사내의 그림자가 그때마다 나무 위로 올라가 빛줄기의 끝에서 열매를 따듯 잠든 새들을 집어 내렸다. 잠결에 빛을 맞은 새들은 눈먼 장님처럼 움짱달짝을 못했다. 날개를 퍼덕여 날아 보는 새들도 방향을 못 잡고 좌충우돌하였다. 나뭇가지에 부딪쳐 떨어지는 놈도 있었고 제물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쳐 내리는 놈도 있었다.

그림자는 끊임없이 빛줄기를 들이대며 잠든 새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기이하게 손쉬운 새의 사냥법이였다.

— 녀석들이 그렇게 다시들 돌아오곤 하였군.

사내는 저절로 탄성이 새어 나왔다. 하지만 그 손쉬운 사냥법에 대한 사내의 감탄은 그리 긴 시간 계속될 수가 없었다.

조용한 어둠 속에 빛줄기가 너무 세차기 때문이었을까. 한동안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그런 광경을 숨어 보고 있던 사내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가슴이 몹시 떨려 오기 시작했다. 빛줄기가 까닭 없이 두렵고, 빛줄기를 조종하고 있는 사내의 그림자가 무척대고 무서워졌다. 아무래도 안 볼 것을 엿보고 있는 듯 사지마저 조그맣게 움츠러들고 있었다. 게다가 그 빛줄기는 이제 사내 쪽으로 자꾸만 가까이 거리를 좁혀 들고 있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나)

이청준 소설은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 권력과 자유의 문제는 그의 중요한 서사적 탐구 주제이다. 작가의 여러 소설들은 이 주제를 직접 재현하기보다는 주로 우의(allegory)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으로 서사화했다. 「잔인한 도시」 또한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그렸다. 이는 ㉢해방-구속의 모티프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작성 방법>

- (나)의 ㉢가 드러나는 대상을 (가)에서 찾아 쓰고, ㉢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
- (나)의 관점에서 ㉠과 ㉡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12. 다음을 읽고, <정수정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임금이 장연을 불러 정수정의 표를 보이고 말하였다.
 “경이 이전에 정수정과 언약한 적이 있느냐?”
 장연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생시에 정흠과 정훈하여 빙물을 전하였으나 그사이 혼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정수정에게 물었더니 수정이 제 누이가 죽었다고 하기에 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정수정이 음양을 바꾸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임금이 서안을 치며 말하였다.
 ㉠ “이런 여자는 참으로 고급에 드물다.”
 그러고는 표에 비답을 내렸다.

경의 표를 보니 비답에 내릴 말을 생각하지 못하겠다. 부모형제가 없는 규종의 언약한 여자로서 기특한 생각을 내어 가문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으려 만 리 전쟁터의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큰 공을 세워 돌아왔으니, 이는 팔 척 장정이라도 못할 일이다. 한낱 여자로서 이런 일을 [A] 하여 빛나는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였다. 짐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부마로 삼으려 했는데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 도리어 국가의 불행이로다. 군신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칭죄할 필요가 없다. 경등의 혼사는 짐이 맡아서 추진하겠다. 모든 직임은 환수하고 청주후는 식읍을 삼아 둘 것이니 경은 그리 알라.

정수정이 비답을 보고 다시 표를 올려 혼사와 식읍을 굳이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니 정수정이 마지못해 입궐하여 사은하였다.

[중략 줄거리] 정수정과 장연이 혼인한 후 복적이 일어나자, 정수정이 정북대원수를 제수받아 출전하여 복적을 물리친다.

정수정이 소와 양을 잡아 삼군을 잘 먹인 후에 또한 술을 내어 와 마시며 술에 취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좌우 군사에게 중군장 ㉡ 장연을 끌고 오라 호령하였다. 무사가 쇠사슬로 장연을 움아매어 장대 아래에 데리고 왔는데, 장연은 무릎을 꿇고자 하지 않았다. ㉢ 정수정이 크게 화내며 말했다.
 “도적이 국경을 침범하여 임금께서 근심하며 나에게 도적을 막으라 하셨다. 내가 임금의 명을 받아 밤낮으로 근심하는 차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한 군량미를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않았는가? 대장의 명령을 어긴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군법에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 무사를 명하여 장연의 목을 베라 하였다. 장연이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B] “내가 비록 용렬하지만 그대의 남편이다. 소소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군법을 핑계로 남편을 곤욕하는 것이 여자의 도리인가?”

이 말을 들은 정수정이 항복을 받으려는 뜻이 더욱 강해져 짐짓 꾸짖었다.
 “그대는 일이 돌아가는 형세를 모르는구나. 국가의 중심을 맡았으니 그대는 이미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가 법을 어겼다면 어찌 부부의 의리에 구애되어 군법을 어지럽히겠는가? 그대가 나를 초개같이 여기는데 나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하지 않노라.”
 하면서 무사를 재촉하였다.
 - 「정수정전」 -

<작성 방법>
 ○ ㉠과 같이 말한 근거를 [A]에서 2가지 찾아 쓸 것.
 ○ [B]를 바탕으로 ㉡에 대한 ㉣, ㉤의 관점을 각각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